

“명절 알바 채용 꿈도 못꿔...가족끼리 가게서 설 쇠요”

광주·전남 자영업자들, 임대료 등 운영비 걱정엔 문 못닫아 ‘명절 웃돈’ 알바 채용 언감생심...가족 동원 영업 부지기수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둔 광주·전남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고물가·고금리에 한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명절에도 가게 문을 닫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자영업자는 설에 가게문을 계속 열어야 하지만 비싸지는 인건비 때문에 아르바이트생도 못 쓰고 꼼짝없이 혼자 가게를 지키거나 가족까지 동원해 명절을 가게에서 보내야 할 처지다.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베트남 요릿집을 운영하는 하민지(여·34)씨는 “사람도 별로 없고 명절이라도 쉬고 싶는데 월세 생각하면 하루만 쉬어도 10만원 이상이 된다”며 “건물주는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데다 아르바이트생이라도 뽑으려면 명절이라고 웃돈을 줘야 하니 사장 둘이서 일 해야겠다”고 했다.

외식업계에서는 코로나19 당시 정부를 통해 받은 대출 상환 기간은 다가오고, 식자재 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금리 때문에 추가 대출도 어려워져 자영업자들이 명절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서구 상무지구에서 24시간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김덕운(71)씨 또한 “최소한도인 오전 1명, 오후 1명씩 총 2명의 베트남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영업할 생각이다”며 “요즘은 100만원 매출을 올려도 순 매출은 5만원도 안 남을 때가 많다. 더구나 월세, 최저시급, 재료값 죄다 오르기만 하니 더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벌어야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일대에서 카페를 하는 50대 후반 김현환씨는 “명절에 매출이 떨어질 것이 뻔하지만 조금이라도 매출에 도움이 된다면 영업을 해야 할 것 같다”며 “인건비라도 아껴야 하니 집사람이랑 둘이서 영업할 생각이다. 알바생까지 쓰려면 한달 매출이 3000만원 이상은 나와야 하는데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수완지구에서 카페를 하는 김하은(여·35)씨는 “어머니 가게인데, 알바생 구하기 힘들어 종종 도우러 온다. 명절에도 이틀만 쉬고 정상 운영할 것”이라며 “명절이라고 따로 사람이 불리는 건 아니지만, 임대료와 재료비가 나날이 오르기 도저히 문을 닫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명절 동안 가게 문을 닫지 않겠다는 자영업자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포털 ‘알바천국’이 최근 전국 자영업자 9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5%가 설연휴에도 매장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76.7%)보다 4.8%p 증가한 수치다.

연휴 내내 매장을 운영하겠다는 응답자는 40.2%로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4.8%p)했으나, 연휴 중 1-3일 가량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응답은 41.3%로 9.6%p 높게 나타났다.

설 연휴에도 쉬지 않는 이유로는 ‘설 연휴 매출 및 손님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돼서(34.7%, 복수응답)’ 및 ‘조금이나마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34.7%)’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업종 특성상 설 연

휴가 대목이라서(26.7%), 기존 영업일에 해당되기 때문에(26.7%), 고향 방문, 여행 등 별다른 계획이 없어서(13.3%) 순이었다.

연휴 중 알바생 고용 계획을 밝힌 비율은 52.0%에 그쳤으며, 이는 지난해 동일 조사 결과(55.1%)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연휴 동안 신규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19.4%는 ‘나 홀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윤상현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경영지원부장은 “인건비도 오르는데 명절에는 압목적으로 20~30% 임금을 더 주는 게 관례라 사람 구하기도 부

담이 크기 때문에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진 것”이라며 “빛에 허덕이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유예·원리금 대출이자 경감, 코로나19때 받은 대출은 대출 경력에서 제외해주는 등 정책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음주단속 밤낮없다 광주동부경찰이 7일 광주시 동구 서남동 일대에서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야간뿐 아니라 아침, 낮 시간대까지 지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나영주 기자 mjna@kwangju.co.kr

‘프리다이빙 수강생 사망’ 수영강사 금고형

광주시내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산소통 없이 숨을 참고 잠수하는 스포츠) 강습생이 숨진 사고(2023년 1월 2일자 광주일보 6면)와 관련 수영강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해림)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수영강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프리다이빙 강습 위탁사업 운영자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광주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 강습을 하던 중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수강자가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수심 5m 다이빙 풀에서 홀로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다가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뇌사 판정을 받고 숨졌다. 이후 피해자 측은 5명에게 장기기증을 했다.

A씨는 사고 당시 프리다이빙을 함께할 수강생을 지정하기만 하고 다른 일을 하다가 피해자가 물에 빠진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는 등 과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B씨도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과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인정된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문어발식 사업확장 1천억대 사기...회사 대표 징역 10년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서 고수익 미끼 자금 끌어모아

SNS 투자방이나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 등지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끌어모아 10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 유사수신 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모 그룹 대표 A(43)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상자산 발행·유통, 태양광 발전 사업, 스마트팜 분양, 엔터테인먼트 사업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773명을 모집해 113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금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온라인에서 ‘원금을 보장하고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투자자들에게 연 8~12%의 이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신규 투자자가 낸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로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가 대책위까지 꾸려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피해 역수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아파트 특수목적법인 대표 사기로 법정구속

광주 아파트 건설 관련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A씨가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7일 사기·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추징금 7억 7000만원도 부과했다.

재개발 사업 업무대행사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지자체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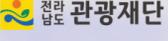
A씨는 현직 지자체장,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

세워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빨리 처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지역 단체장 등과 식사·골프 모임을 갖기도 했다.

재판부는 “청탁 받은 일부 금액은 실제 업무에 사용됐으나 전체적으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지역주택조합 사업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의 개입으로 실제로 해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세계로 준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2024 New Year 봄 여행은 전라남도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국내관광객 모객 인센티브
차량임차비
체험비
해외 인바운드 인센티브
지상비
해외 광고비 등

www.ijnto.or.kr
☎ 061-802-2172(국내) 2192(해외)